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추수감사주일

다음주일 11월 23일(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 (11/9)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17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11.16 (630호)

말씀과 삶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다함께
	누가복음 20:41-47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유형선
	더 엄한 심판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1월 23일	11월 30일
김주연	이우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부활논쟁

성경은 믿음이 제한적으로 허락되어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소경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바로 그 소경된 자들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세금논쟁을 벌였고, 이제 부활논쟁까지 벌리면서 그들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는 그들이 믿은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 소생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육체적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단순히 소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안에 숨어 있던 그 방 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7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한 여자와 장가를 갔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는것이냐고 비아냥 거리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더이상 육체적인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경된 자들은 자신의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다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허락된 자들에게 부활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재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결국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분만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